CHOSUN UNIVERSITY 1946	국제화	프로	그램	참가	2	멸과보고 <i>/</i>	Ŧ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소속								
성명		학번				연락처		
참가 프로그램	북미 1학기 (	H학연수 ]	피츠버그	대학교				
프로그램	2022.08.30.~	2022.12	.01.					

# 1.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피츠버그 대학교에 가기 전 준비과정부터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에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레벨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시험은 줌으로 진행이 되었고, 시험에는 듣기, 문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보다 낮을 경우에 는 가지 못한다고 들었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닥 잘 봤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 걱정이었지만. 무사히 반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레벨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만 학교에서 I-20(입학허가서) 를 주게 되는데 이것을 받아야 SEVIS 등록, DS-160, 비자 인터뷰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스트를 보지 않는 플로리다 대학교보다 어학연수를 준비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빠르게 준비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 수업은 Reading, Writing, Grammar, Listening, Speaki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 때 배우는 내용은 크게 낯설지 않았지만, 수업 분위기만큼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항상 |밝은 분위기 속에 수업이 진행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질문이나 대답을 하는 것이 자유로웠 으며, 이러한 수업 분위기 덕분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또한 높았습니다. 문제에 답을 할 때 도 틀린 답을 말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왜 그 답이 아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셨고, 신박한 질문 이 나올 때면 "Good question!"이라며 열심히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Reading과 Grammar 수업은 내용이나 방식이 한국에서 이미 받아왔던 방식과 비슷하여 어렵지 않게 수업 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Writing은 주제에 맞게 초반에는 한 단락 정도, 후반에는 세 단락 정 도의 분량을 쓰도록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글을 써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던 수업이었지만, 선생님께서 틀린 문법이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주시고, 이렇 게 쓰는 것이 맞는지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나중에는 부담감 없이 수 업을 듣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Listening이었습니다. 수업 때 듣는 듣기와 일상생활에서 듣는 듣기에는 큰 차이가 있었 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때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실생활로 갔을 때 많은 어려 움을 겪었습니다. 듣기는 많은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익숙해져가야 한다는 것을 느 꼈습니다.

CHOSUN UNIVERSITY 1946	국제화	프로	그램	참가	결	!과보고 <i>/</i>	Н	지역과 함께 100년, 약생과 함께 미래로!
소속								
성명		학번				연락처		
참가 프로그램	북미 1학기 C	H학연수 I	 기츠버그 (	대학교				
프로그램 차가기가	2022.08.30.~	2022.12.	.01.					

Speaking 수업은 파트너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고, 종종 컴퓨터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주제 가 주어지고, 주제에 맞는 내용을 2분간 생각하고, 헤드셋을 이용하여 1분간 녹음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버벅거리기도 하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도 짧게 느껴지고,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제를 받은 뒤 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해내고, 주어진 시간에 맞게 녹음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로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 성적표에서 제 성적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수요일을 제외한주 4회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제가 속해 있던 레벨은 월, 목 8시-12시, 화, 금 8시-3시에 끝났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교 주위를 둘러보거나 ELI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찾아 참여하곤 했습니다.

#### 2. 참가 성과

어학연수를 시작하기 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활동하면서 만나게 된 친 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식당을 가거 나 마트를 갔을 때에도 항상 영어를 듣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은 있었으나 부담감은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에게 직접 음식을 주문할 때도 굉장히 떨렸었고, 직원들이 제가 말 한 주문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할 때면 자신 감이 많이 떨어졌지만, 매일 영어로 말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자신감도 생겨갔던 것 같습니 다. 또한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진 못하더라도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배웠 습니다. 본인이 틀리더라도 일단 막 뱉어보는 것이 말을 트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일 크게 느꼈습니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ভি					지역과 양해 100년, 학생과 양제 미래로!			
소속								
성명		학번		연락처				
참가 프로그램	북미 1학기 0	북미 1학기 어학연수 피츠버그 대학교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2.08.30.~	2022.08.30.~ 2022.12.01.						

#### 3. 소요경비

ex) 프로그램 비용, 항공료, 보험료, 숙박비용, 식비, 개인 경비(통신비, 여행비용 등) 등

- 프로그램 준비 비용 : 약 180만 원(피츠버그 대학교 지원비, 각종 서류 준비 비용, 기숙사 신청비, 공항버스)

- 등록금 : 5150불. 약 749만 원

- 보험료 : 3개월 약 316불, 약 43만 원

- 항공료 : 인천 - 디트로이트 - 피츠버그(델타항공) 약 178만 원

엘에이 - 인천(에어프레미아) 약 83만 원

- 숙박비용 : 한 달 490불, 약 70만 원(다운타운 내 학생 기숙사 거주)

- 식비 : 9~11월 약 850불(밖에서 사 먹은 것+카페 포함, 만들어 먹은 것 제외)

- 통신비 : 민트모바일 3개월 약 100불, 약 14만 원(무제한 데이터)

- 여행비용 : 약 700만 원(항공권 제외)

제가 미국에 갔을 당시 환율은 1,400원 중, 후반이었습니다.

## 4.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언어는 어릴 때 배우는 것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대부분 중, 고등학생 때 미국에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살아온 사람들은 영어를 현지인들처럼 능숙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언어를 배우고 싶을 때는 그 언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직접 부딪혀가며 배우는 것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문제를 읽고 푸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 영어로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막상 영어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보니 그러한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금방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좋은 경험도 많이 했지만, 좋지 않은 경험들도 겪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CHOSUN UNIVERSITY 1948	국제화	프로	그램 참	가 길	멸과보고 <i>/</i>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소속						
성명		학번			연락처	
참가 프로그램	북미 1학기 C	H학연수 I	디츠버그 대학교	<u>)</u>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2.08.30.~	2022.12.	01.			

#### 5.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 1) 학업계획

어학연수를 하는 동안은 교양이 18학점 채워지는 대신,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은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전공 학점을 채워가면서 남은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익 점수 또한 현재 점수보다 더욱 높은 점수를 목표로 두고 달성 할 예정이며, 토스나 토플도 향후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 2) 진로계획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는 해외 취업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번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해외 취업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고, 해외 취업을 목표로 진로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투어 하면서 만났던 한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뉴욕으로 취업해 J1비자를 받아 지내고 있다며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셨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먼저 자격증과 영어 공부부터 꾸준히 하면서 차근차근 미국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6.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미국 내에서 지낼 수 있는 선택지는 홈스테이, 다운타운 내 기숙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운타운 내에 있는 학생 기숙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홈스테이를 선택하게 됐을 경우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복불복이었다는 점입니다. 홈페이지에 최대 45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 적혀 있었고, 교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서 45분은 무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호스트에 따라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갔을 때 모든 일본 친구들이 홈스테이를 하는 중이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다보니 버스가 일찍 끊겨 늦게까지놀지 못하고 일찍 집에 가야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 항상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이 행사나 여행에 같이 데려가 주는 모습도 보았고,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어 놀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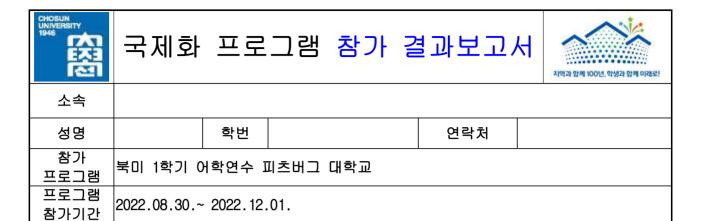
다운타운 내에 있는 학생 기숙사는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61번 또는 71번 모든 버스가 학교에 갑니다. 하지만 출근시간에 차가 많이 막혀 저는 조금 더 떨어진 정류장에서 67번, 69번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61번, 71번은 금방금방 오지만, 67번, 69번은 배차간격이 넓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숙사까지 가는 버스가 많아 늦게까지 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CHOSUN UNIVERSITY 1946	국제화	프로	그램	참가	글	遺과보고 <i>/</i>	Н	지역과 함께 100년, 약생과 함께 미래로!
소속								
성명		학번				연락처		
참가 프로그램	북미 1학기 C	H학연수 I	 피츠버그	대학교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2.08.30.~	· 2022.12.	.01.					

방 옵션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2인실을 선택하여 피츠버그 대학교를 선택한다른 학생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8층인 꼭대기 층을 사용했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너무 강해 추웠고, 겨울에는 히터를 켰음에도 방이 추워 항상 겉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여름 잠옷을 가져갔지만 기숙사 내에서는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지만 작동이 되지 않았고, 겉옷이나 수면양말을 신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다운타운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저는 항상 둘이서 다녔기 때문에 위험한곳이라고 느끼지 못했지만, 노숙자도 항상 있는 편이고, 돈을 달라고 말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홈스테이와 다운타운 내 기숙사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 잘 고민해 보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도 중요하지만, 즐기고 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도 12시 또는 3시로 일찍 끝나기 때문에 학교 수업 이후에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LI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행사에서 한국인 유학생들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기때문입니다. 피츠버그 학생증이 있다면 피츠버그 내에서 무료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Andy Warhol Museum, Carnegie Museums of Art and Natural History, Carnegie Science Center, Phips Conservatory and Botanical Gardens, Mattress Factory, Heinz History Center, Soldiers & Sailors Memorial Hall & Museum이 있습니다. Carnegie Museum, Phips, Soldiers Memorial Hall은 학교 근처에 있으니 수업이 끝나고 시간이 되실 때 한 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Phips는 밤보다 낮에 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밤에는 벌레가 많아요. 또한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등 공연들을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고, 풋볼이나 아이스하키 같은 경기들도 정가보다 저렴하게 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피츠버그는 근처 다른 나라에 여행가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츠버그에 지내는 동안 토론토,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델라웨어를 다녀왔고, 학기가 끝난 후에 는 피츠버그에서 만난 한국인들끼리 서부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내 다양한 곳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것도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 드립니다.



# 활동사진(2장 이상)



아이스하키 경기



풋볼 경기



할로윈 pumpkin curving



홈커밍 행사 행진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



피츠버그 발레 공연



ELI 수업 듣는 친구들